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광주FC 창단 첫 우승·승격

2019 광주·전남 체육 결산

광주세계수영대회
194개국 2500명 선수 참여
지구촌 축제로 세계가 주목

광주 FC
개막 후 19경기 무패
K리그 2 최다 기록 세워

KIA 타이거즈
첫 외국인 감독시대 개막
이범호·윤석민 은퇴 선언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도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각본 없는 드라마'가 사람들을 웃고 울게 했다.

광주·전남 지역 스포츠계에서도 환호와 기쁨, 좌절과 아쉬움이 공존했다. 2019시즌 눈길을 끌었던 지역 스포츠 소식들을 정리해봤다.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19 광주수영세계선수권대회 열리면서 전세계 수영팬들의 눈길이 광주에 쏠렸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진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194개국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 하이드로볼, 오픈워터 수영 등 6개 종목·76개 세부 종목에서 대결을 벌였다.

6개의 금메달(은메달 2개)로 최다관왕에

오른 케일럽 드레셀(미국)과 금1개·은2개·동2개의 성적을 낸 사라 셰스트림(스웨덴)이 2회 연속 남녀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하이드로볼을 제외한 5개 종목에 사상 최다인 82명의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여자 수구와 오픈워터 수영에 첫 선을 보였다. 김수지는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다이빙 첫 메달리스트가 됐다.

KIA 타이거즈에 2019년은 '작별의 해'였다.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던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5월 16일 자진 사퇴했다. 2015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고향팀에 입성했던 김 감독은 2017년 우승 감독으로 정상에 섰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KIA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 선수들도 잇달아 그라운드를 떠났다.

'만루의 사나이' 이범호가 7월 14일 친

정 한화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2017시즌이 끝난 뒤 트레이드로 삼성으로 이적한 '아픈 손가락' 한기주도 지난 11월 어깨 부상으로 은퇴를 결정했고, 스프링캠프를 준비했던 윤석민도 몸 상태 등의 이유로 지난 13일 은퇴를 발표했다. 타이거즈 팬들에게 수많은 환호의 순간을 선물했던 이들의 아쉬운 퇴장이다.

KIA의 2019시즌은 낙점점을 받았지만 '에이스' 양현종과 '도루왕' 박찬호는 사람들을 웃게 한 희망이었다.

초반 부진으로 우려를 샀던 양현종은 '평균자책점왕'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한때 평균자책점이 8.01까지 치솟았지만 양현종은 8월 5경기를 0.51로 막는 등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그리고 두산 린드블럼과 막판 경쟁을 펼친 끝에 2.29로 평균자책점 1위 트로피를 차지했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박찬호는 달라진 파워와 공격적인 질주로 KIA 공격의 한 축이 됐다. 또 39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도루왕' 자격으로 KBO리그 시상식에 섰다.

아쉬움의 시즌을 보낸 KIA는 타이거즈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며 스토브리그 화제의 팀이 됐다.

KIA는 10월 15일 'BK' 김병현의 옛 동료로도 익숙한 '스타플레이어' 출신 맷 윌리엄스 감독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타이거즈의 첫 외국인 감독 타이틀을 차지한 윌리엄스 감독은 계약 후 바로 한국에 입국, 마무리캠프를 지휘하면서 2020시즌의 밑그림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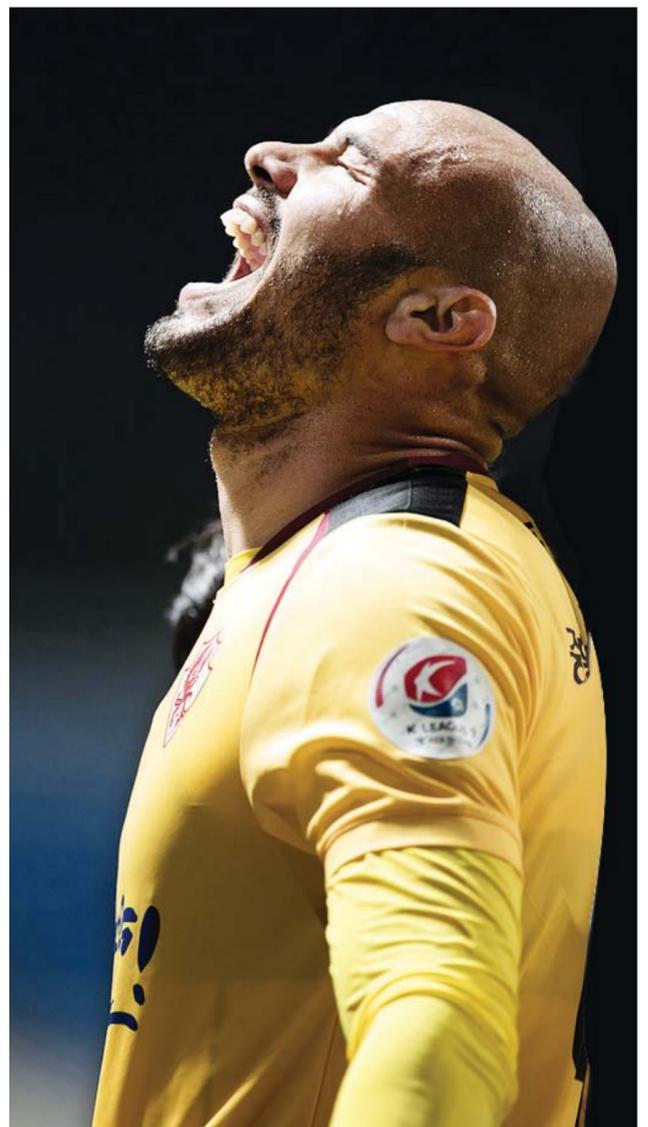
축구 그라운드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FC가 창단 첫 우승으로 승격의 꿈을 이뤘고 강등 후 첫 시즌을 보낸 전남드래곤즈는 첫 외국인 사령탑이 중도 경질되며 사연 많은 시즌을 보냈다.

광주FC는 서울이랜드와의 개막전 2-0 승리를 시작으로 개막 후 19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 K리그2 최다 무패 기록이었다. 박진섭 감독은 무패행진 기간 개막전 당시 입었던 '겨울 양복'을 고수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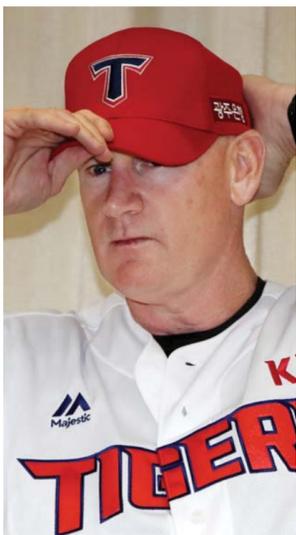
광주는 21승 10무 5패(승점 73), 1위로 시즌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기업 구단' 부산아이파크의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고 창단 첫 우승을 이룬 승격에 성공했다. 광주는 최다 무패 기록은 물론 창단 첫 6연승, 팀 최다승 및 최다승점 등을 새로 썼다. 박진섭 감독은 K리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했고, 최근 광주와 2년 재계약도 이뤘다.

광주는 U-18 금호고의 활약까지 더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최수용 감독이 이끄는 금호고는 지난 11월 2019 전국고등학교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 74회 전국고등학교축구선수권대회의 결승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이재환의 극장골에 이은 송주민의 역전골로 첫 왕



'K리그2 득점왕' 광주 FC 펠리페



KIA 감독 맷 윌리엄스



방어율 1위 양현중



'은퇴' 이범호



금호고 U-18 왕중왕전 우승

중왕전 우승에 성공했다. 앞선 8월에는 U-18 챔피언십에서 수원 매탄고를 승부차기 접전 끝에 5-3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엄지성(MF·2년), 신수훈(GK·2년), 허윤(FW·3년)은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K리그2 '우승후보'였던 전남드래곤즈는 초반 부진에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전남은 팀 첫 외국인 사령탑인 파비아노 수아레스 감독을 앞세워 승격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출발 속 하위권 싸움을 펼친 전남은 7월 말 파비아노 감독을 경질하고, 전경준 감독체제로 팀을 재편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바이오의 활약을 더해 뒤늦게 전남이 힘을 과시했지만 4강에는 한 발이 부족했다. 4강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전남은 후반기 막판 순위 싸움의 복병으로 박수를 받았다. 팀 안정화와 리빌딩에 성공한 전경준 감독대행은 내년 시즌 대형 포리스트를 떠고 전남을 이끈다.

올해로 100회째를 맞아 서울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광주·전남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체육은 종합 순위 10위라는 사상 최고 성적을 올렸다. 광주 선수단은 금메달 47개, 은메달 53개, 동메달 80개 등 총 180개의 메달과 종합 득점 3만3117점을 기록, 원정 체전 사상 최다 메달, 최고 득점을 올렸다. 전남선수단은 지난해 종합 10위에서 13위로 3계단 내려앉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투수 불리한 AL...동부지구 양키스·보스턴 상대전적 관전

류현진 극복해야 할 과제들

류현진(32·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빅리그 8년 차를 맞는 내년 시즌,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

토론토는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성대한 입단식을 열고 류현진에게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혔다.

4년간 8000만 달러(약 929억원)에 계약한 류현진은 이제 7년간 정들었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떠나 토론토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미국 서부 남쪽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캐나다 동부 토론토까지 거리는 미국 주간 고속도로 기준 약 4053km다. 구글 지도상 자동차 운전으로 37시간이 걸린다.

비행기를 타면 로스앤젤레스에서 토론토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그 먼 거리만큼이나 류현진의 토론토 이적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먼저 류현진은 리그 자체를 옮겼다. 류현진이 지금까지 뛰었던 내셔널리그(NL)는 투수가 타석에 들어선다. 반면 아메리칸리그(AL)는 타격에만 전념하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다.

내셔널리그 투수들은 상대 투수가 나오는 타순에서 쉬어갈 수 있지만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쉬어갈 타순이 없다. 투수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

류현진은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메리칸리그팀을 상대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지금까지 통산 15경기에 등판해 4승 4패, 평균자책점 3.84로 고전했다.

그에 반해 내셔널리그팀 상대 통산 성적은 50승 29패, 평균자책점 2.86이었다.

올해 8월 한 차례 등판을 포함해 뉴욕 양키스와 두 차례 대결에서는 2패에 평균자책점 8.71로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는 메이저리그 6개 지구 가운데 가장 타선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동부지구에는 지난해 팀 득

점 1위인 양키스와 4위인 보스턴 레드삭스가 속해있다.

토론토는 올해 1위 양키스보다 36경기, 3위 보스턴보다 17경기 뒤진 4위 시즌을 마쳤다.

류현진이 상대할 타자들의 면면도 쟁쟁하다. 올해 아메리칸리그 타율 상위 10위 명단을 보면 양키스의 D.J 라메이휴(2위·0.327), 보스턴의 라파엘 데베스(5위·0.311) 등 동부지구 선수들만 4명이 포진했다.

아메리칸리그 홈런 6위인 양키스의 글레이버 토레스(38홈런)를 포함해 30개 이상 홈런을 친 선수도 9명이나 있다.

류현진은 이러한 동부지구 강타자들과 함께 최근 양키스와 9년, 3억2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게릿 콜, 보스턴 에이스 크리스 세일 등과 1선발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

게다가 토론토 홈인 로저스센터는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으로 악명이 높다.

ESPN의 파크 팩터에 따르면, 올해 로저스센터는 30개 구장 중 가장 많은 홈런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에 류현진의 99번 유니폼이 걸려 있다.

자수(1.317)를 기록했다.

류현진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류현진이 이러한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류현진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이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공식 입단 기자회견에서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